

 <div>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div>	<div>보도자료</div> <div>“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div>	<div> <a href="#">페이스북 @kcanews</a></div> <div> <a href="#">인스타그램 @kca.go.kr</a></div>	
이 자료는 7월 2일(목) 06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20년 7월 1일(수) (총 10쪽)	담당부서	시험검사국 기계금속팀
		담당자	서정남 팀장 (043-880-5911) 조수민 주임연구원 (043-880-5915)

## 등받이가 경사진 바운서, 요람 등에서 아기를 재우지 말아야 - 수면 중 질식 사고 발생 우려 있어 -

유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사진 바운서, 흔들의자, 요람 등(이하 ‘경사진 요람’)은 아기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육아부담을 줄여주는 제품으로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경사진 요람에서의 영아 질식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리콜 대상 제품 확대, 안전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미국에서 지난 15년간(05.01.~19.06.) 경사진 요람과 관련된 73건의 영아 질식 사망사고가 보고됨.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내 유통·판매 중인 경사진 요람 9개 제품을 시험·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의 등받이 각도가 수면 시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이었고, 8개 제품은 수면 또는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판매사이트 상위 9개 브랜드 9개 제품

### □ 경사진 요람에서의 수면은 질식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성장·발달 초기에 있는 만 1세 미만의 영아는 기도가 상대적으로 좁아 기도 압박, 막힘에 의한 질식사고의 발생 우려가 다른 연령에 비해 높다. 각 국가의 정부와 소아 관련 단체\*에서도 영아의 안전한 수면을 위해 평평하고 딱딱한 표면에서 똑바로 눕혀 재울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캐나다 보건복지부 등

‘경사진 요람’은 평평한 바닥에 비해 목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가 상대적으로 쉽게 몸을 뒤집고, 고개를 돌리거나 아래로 떨어질 수 있어 산소 부족을 느끼게 되거나 기도가 막히는 등의 질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경사진 요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수면을 제한하고, 등받이 각도가 10도 이내인 ‘유아용 침대’에 대해서만 수면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경사진 요람이 별도 구분없이 유아용 침대로 분류되어 수면에 대한 표시·광고 제한이 없으며, 등받이 각도도 80도까지 허용되고 있다.

\* 유아용 그네, 유아용 바운서, 유아용 흔들의자 등

[ 경사진 요람에서의 영아 질식사고 유형 ]



\* 자료출처 : While They Were Sleeping(2019. 12. 30. consumerreports)

한국소비자원이 경사진 요람 9개 제품의 등받이 각도를 측정한 결과, 14도에서 66도 수준으로 나타나 국내 기준\*은 충족했지만 수면 시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이었다.

\*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14(유아용 침대) 제2부 - 기울어진 요람 및 간이침대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더욱이 이중 8개 제품\*은 수면 또는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가 잘못 사용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한 6개 업체 모두 수면을 위한 유아용 침대가 아님을 밝혔으며, 수면과 관련된 표시·광고는 수정·삭제할 예정임을 회신함.

## □ 유아용 침대 관련 국내 안전기준 강화 필요

경사진 요람은 수면 중 영아의 질식사고 발생 우려가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유아용 침대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아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표시 사항\*을 누락한 4개 제품\*\*에 대해서 시정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경사진 요람에서 영아의 수면을 금지하도록 안전기준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 사용연령 또는 한계체중, 유아를 내버려 두지 말 것 등의 경고 표시

\*\*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한 4개 업체 모두 의무 표시사항을 보완할 것을 회신함.

## □ 영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수면 및 수면 연상 광고에 대한 일괄 시정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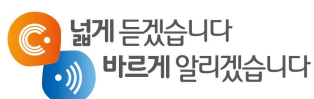
경사진 요람은 영아의 수면을 위한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몰, 해외직구·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수면용 제품으로 표시·광고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아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TV홈쇼핑) 정례 협의체\*를 통해 수면용 제품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사진 요람에 대한 일괄적인 개선 조치\*\*를 요청했다.

\* 산업별 소비자의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위해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해 출범한 협의체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5개사, TV홈쇼핑은 7개사가 참여 중임.

\*\* 제품 광고의 수면 또는 수면을 연상시키는 내용 수정 및 삭제

한편, 소비자들에게 경사진 요람의 사용에 따른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아기가 잠이 들면 적절한 수면 장소로 옮길 것, ▲항상 안전벨트를 채울 것, ▲아기를 혼자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 <붙임> 1. 경사진 요람 시험·조사 결과  
2.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영아의 안전한 수면 환경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http://www.kca.go.kr)



※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참여혁신 제안방'을 통해 기관 운영과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대표 누리집([www.kca.go.kr](http://www.kca.go.kr)) 접속을 통해 제안·참여 가능]

## < 붙임 1 > 경사진 요람 시험 · 조사 결과

### 1 질식사고 원인분석 결과

#### 가. 영아의 운동 발달 순서 및 안전한 수면 환경

##### 1) 영아의 운동 발달 순서

- ☐ 영아의 운동 발달 순서는 머리에서 다리 쪽으로, 몸통에서 말단 쪽으로 발달하는 특성을 보이며 목을 가누는 후에 뒤집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임.

[ 월령별 영아 운동발달 특성 ]

평균 개월수	운동발달 특성
1개월	엎드린 자세에서 머리를 좌우로 돌린다.
2개월	엎드린 자세에서 가슴을 든다.
3~4개월	목을 가누다.
4개월	엎드린 자세에서 손/손목으로 상체를 90도 든다.
	뒤에서 앞으로 뒤집는다. (뒤집기)
5개월	앞에서 뒤로 뒤집는다. (되집기)

※ 영아의 운동발달 속도는 개인차가 있음.

\* 자료출처 : 홍창의 소아과학

##### 2) 안전한 수면 환경

- ☐ 수면 중인 영아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평평하고 딱딱한 표면에서 재우는 것이 바람직함.
- 성장·발달 초기에 있는 만 1세 미만의 영아는 기도가 상대적으로 좁아<sup>1)</sup> 기도 압박, 막힘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음<sup>2)</sup>.
  - 국내·외 정부 및 소아 관련 단체\*에서는 영아의 안전한 수면을 위해 평평하고 딱딱한 표면에서 똑바로 눕혀 재울 것을 권고함.

\*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건복지부, 국내외 소아학회,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캐나다 보건복지부 등

1) 기도 저항은 기도 반지름의 4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영아의 경우 작은 폭의 감소도 저항은 크게 나타남(홍창의 소아과학)

2) 국내 침대류 제품 어린이 질식사고 중 1세 미만의 영아 비율은 94.9%(37건)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통계청, 2018.5.3.)]

## 나. 경사진 요람에서의 질식사고 원인분석 결과

### 1) 경사진 요람의 구조

- 등받이가 기울어진 바운서, 흔들의자, 요람 등의 경사진 제품(이하 ‘경사진 요람’)에서 영아 수면 시 질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경사진 요람은 평평한 바닥에 비해 목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가 상대적으로 쉽게 몸을 뒤집고, 고개를 돌리거나 아래로 떨굴 수 있어 산소 부족을 느끼게 되거나 기도가 막히는 등의 질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음.

[ 경사진 요람에서의 영아 질식사고 유형<sup>1)</sup> ]

		
뒤집힘	고개를 옆으로 돌림	고개를 아래로 떨굼

- 경사진 요람들은 해당 권고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영아 수면용 침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영아의 안전한 수면을 위해 평평하고 딱딱한 표면에서 똑바로 눕혀 재울 것

- 특히, 기도가 상대적으로 좁고 약한 특성을 가진 영아는 고개를 떨구는 상황에도 기도 압박에 의한 질식사고 우려가 높음.

[ 고개를 떨구기 전·후의 기도 압박 변화 ]

	
고개를 떨구지 않을 때	고개가 앞으로 떨어질 때

※ 영아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임.

1) While They Were Sleeping(2019. 12. 30. consumerreports)

## 2) 영아 신체 활동 특징

-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다양한 형태의 유아용 수면 제품 (평평한 침대, 경사진 침대, 경사진 수면 제품 등)에서 유아의 근육운동 및 산소 포화도를 측정한 결과, 등받이가 경사진 수면 제품들은 유아 수면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함.

### [경사진 수면 제품에서의 영아 신체 활동 주요 연구 결과<sup>1)</sup>]

- 1) 경사 표면에서 몸통(배)의 근육활동 증가로 인한 피로도 및 질식 위험 증가
- 2) 경사진 표면에 적응하기 위한 목과 몸통의 추가적인 움직임 필요
- 3) 뒤집혀 있을 시,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질식 위험 증가
- 4) 경사 표면에서는 평평한 표면에 비해 이른 시기에 뒤집기가 가능
- 5) 뒤집혀 있을 시, 질식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피로도의 증가

### [ CPSC의 영아 신체 활동 연구 사례 ]

	
근육운동 측정	산소 및 이산화탄소 포화도 측정

1) Supplemental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for Infant Sleep Products (CPSC, 2019.10.16.)



## 가. 국내기준

- 경사진 요람은 ‘유아용 침대’에 포함되며, 등받이 각도를 80도까지 허용하고 있음.

-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14 제2부(기울어진 요람 및 간이침대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 등받이 경사각은 0도에서 80도 사이어야 한다. 단, 잘 튀어 오르는(탄력있는) 요람은 30도에서 80도 사이어야 한다.

## 나. 해외기준

- 미국, 유럽 등 국가에서는 경사진 요람 제품에 대해 유아용 침대와는 별도의 안전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침대 용도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 국내외 안전기준 비교 ]

<p>유아용 침대 (수면 허용)</p>  <p>유아용 침대</p> <p>경사진 요람</p>	<p>유아용 침대 (수면 허용)</p>  <p>유아용 침대</p> <p>경사진 요람 (수면 제한)</p>  <p>흔들요람</p> <p>바운서</p> <p>흔들의자</p>
국내 기준	해외(미국, 유럽 등) 기준

## 시험·조사 개요

- 시험·조사 대상 : 온라인 유통 · 판매 중인 경사진 요람 9개 제품
- 시험·조사 항목
  - (시험검사) 등받이 각도 측정
  - (표시·광고 분석)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4(유아용 침대)」에 따른 표시사항 및 온라인 광고

## 가. 시험검사

- 시험대상 9개 제품의 등받이 각도\*는 14도 ~ 66도 수준으로 국내기준 (80도 이하)에 적합해 ‘유아용 침대’로 인증 받았으나 미국, 유럽 등에서는 ‘경사진 요람’ 등으로 분류돼 별도 기준을 적용 받음.

\* 유아모형(상체5.74kg 하체2.15kg)을 제품에 눕혀 둔 상태에서 바닥 수평면과 등받이 사이의 각도 측정

## 나. 의무 표시사항

- 시험대상 9개 중 4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명시된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함.
-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14(유아용 침대) 기준에 따라 동 제품들은 모델명, 사용연령 또는 한계체중, 제조연월 등의 제품 정보 및 경고표시(글·그림)\*를 기재 · 표시해야 함.

\* 경고 : 유아를 내버려두지 않을 것

\* 경고 : 높은 곳에서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 4개 제품이 제품 정보 또는 경고표시(글·그림)를 누락함.

☞ 해당 제품을 수입 · 판매한 4개 업체 모두 의무 표시사항을 보완할 예정임을 회신함.



[ 경사진 요람 시험·조사 결과 ]

시료 번호	국내 인증품목	가격 <sup>주1)</sup> [원]	등받이 각도 측정		표시사항	
			각도조절 [단계]	측정결과 <sup>주2)</sup> [도]	제품 정보 <sup>주3)</sup>	경고 표시 <sup>주4)</sup>
1	유아용 침대	258,000	-	27	○	○
2	유아용 침대	44,500	-	38	○	○
3	유아용 침대	177,860	3	27, 35, 41	○	X
4	유아용 침대	34,900	2	40, 49	○	○
5	유아용 침대	70,900	2	27, 38	○	○
6	유아용 침대	76,450	4	31, 41, 53, 66	○	X
7	유아용 침대	108,000	3	14, 20, 42	○	X
8	유아용 침대	253,440	-	37	○	○
9	유아용 침대	35,780	-	32	X	X

기호의 표시 ○ : 표시사항 충족, X : 표시사항 누락, - : 각도조절 기능 없음

주1) 온라인 구입가격(20.4.8. 기준)

주2) 흔들림 고정 장치가 있는 제품은 고정 시킨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임.

주3) 모델명, 사용연령 또는 한계체중, 제조연월 등

주4) 글과 그림이 포함된 경고 문구

## 다. 표시·광고

□ 8개 제품이 온라인 상에서 수면 또는 수면을 연상시키는 표시·광고를 함.

☞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한 6개 업체 모두 수면 관련 광고를 자발적으로 수정·삭제 할 예정임을 회신함.

### 수면 관련 광고 사례

- 아이가 **잠을 자거나**, 뒤척일 때 위험을 대비하여 아이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진동기능으로 보채거나 **낮잠시간** 안정감 있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 **취침모드** : 차분하고, 편안한 자장가로 아기의 꿈나라가 더욱 즐거워지는 모드
- **Sleep모드** : 아이가 잠들었을 때 깨우지 않고 편안하게 뒤로 눕혀 재울수 있습니다.
- 깊게 들어간 바씨넷은 더욱 **깊은 수면**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 흔들림을 잡아 주는 뒷면 고정 홀더(낮잠 사용시)

## 〈 붙임 2 〉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영아의 안전한 수면 환경

### 경사진 요람, 바운서, 흔들의자 등의 영아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 오랜 시간 잠을 자기 위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 아닙니다.
- 수면을 위한 침대나 요람을 대체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아기가 잠이 든 경우엔 적절한 수면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 항상 보호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용해야 합니다.
- 적정 사용연령을 지켜야 합니다.
- 베개, 두툼한 이불, 또는 보호대를 추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 침대, 쿠션, 소파 또는 기타 부드러운 표면 위에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테이블이나 의자와 같이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동시에 2명 이상의 아기를 태우면 안 됩니다.
- 카시트 겸용이 아닐 경우, 해당 제품을 이용해 아기를 차에 태우면 안 됩니다.
- 아기가 제품을 사용 중일 때 함께 들어 올리면 안 됩니다.

### 영아의 안전한 수면 환경

- 천정을 바라보도록 똑바로 눕혀 재워야 합니다.
-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에서 재워야 합니다.
- 아기와 같은 방에서 함께 자되 침대나 이불을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 음주 후 감기약 등 졸리는 약을 복용한 후에는 아기 옆에서 자지 않도록 합니다.
- 이불은 아기의 양쪽 겨드랑이에 끼워줍니다.
- 어른 베개, 방석, 의복 등 아기가 놀면서 잡아당길 수 있는 물건은 치워야 합니다.